

#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용자의 기존 태도와 정치적 성향이 원자력 에너지 기사 선택에 미치는 영향

## 선택적 노출 이론을 중심으로

김효정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선택적 노출(selective exposure)이란, 개인이 자신의 기존 태도나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는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피하려는 경향을 칭한다. 본 연구는 원자력 발전의 효용을 강조하는 뉴스를 접한 개인들에게 추가적으로 긍정적/부정적 기사들을 선택해 읽도록 함으로써, 원자력 에너지 기사에 대한 선택적 노출 경향을 검증하였다. 온라인 실험 결과, 참여자들(N = 180)은 원자력 발전 필요성에 대한 본인의 기존 태도(지지 혹은 반대)에 일치하는 기사들을 선호하여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선택적 노출 경향은, 원자력 발전 지지 집단과 반대 집단 모두에게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또한 선택적 노출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탐색하고자, 두 가지 관점(인지 부조화 해소, 메시지 신뢰성 인식 차이)에서 참여자의 기사 선택 경향을 분석했다. 실험 결과, 원자력 발전 반대 집단에 속한 개인의 경우, 자신이 읽은 원자력 에너지의 효용성 강조 기사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이후 원자력 에너지에 부정적인 기사들을 선택하여 읽으려는 선택적 노출의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용자의 기존 태도(반대 혹은 지지)와 정치적 성향(보수, 중도, 혹은 진보)이 원자력 에너지 관련 기사에 대한 선택적 노출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발견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견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파의 주류적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관련 기사에 대한 선택적 노출의 정도가 감소되는 경향이 있었다. 본 실험 결과를 중심으로, 이론적, 실무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KEYWORDS** 선택적 노출, 원자력 에너지, 인지부조화, 메시지 신뢰성

---

\* hyojkim@kings.ac.kr

## 서론

선택적 노출(selective exposure)이란, 사람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의견에 부합하는 정보들을 선호하는 경향이다(Stroud, 2007, 2010). 자신의 의견이나 믿음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를 접했을 때 심리적 불안감을 느낀다는 인지 부조화 이론(cognitive dissonance theory: Festinger, 1957)에 기반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의 선택적 노출 현상을 연구했다. 라자스펠드와 동료들이 수행한 선거 연구에서 최초로 등장한 선택적 노출 개념은(양승목, 1993), 1960년대까지 정치와 선거 메시지에 대한 유권자의 메시지 선택에 관련해서 활발하게 이뤄졌다(Berelson & Steiner, 1964; Freedman & Sears, 1963; Sears & Freedman, 1967). 이후 선택적 노출 현상과 상반되는 검증 결과들이 나오면서 관련 연구들이 침체되었다가, 2000년대에 들어 뉴미디어 발전으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매체와 채널, 메시지가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컨텍스트에서의 선택적 노출 연구가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Stroud, 2008).

앞서 언급되었듯이, 선택적 노출 연구의 결과는 일관되지 않다. 일련의 연구들이, 수용자의 기존 의견에 일치하는 정보를 선택하는 “선택적 노출” 현상을 발견한 반면(e.g., Arceneaux, Johnson, & Murphy, 2013; Garrett, 2009; Kim, 2015; Knoblock-Westerwick & Meng, 2011; Stroud, 2007), 또 다른 연구들은 기존 의견과 다른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선택하는 “교차 노출(cross exposure)” (Mutz, 2006) 현상을 발견하기도 하였다(e.g.,

Horrigan, Garrett, & Resnick, 2004; Iyengar, Hahn, Krosnick, & Walker, 2008; Redlawsk, 2002; Taber & Lodge, 2006).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수용자의 정보 추구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조절 변인들(moderating factors)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일련의 선행 연구(e.g., Brannon, 2007; Hart et al., 2009; Messing & Westwood, 2012; Taber & Lodge, 2006; Vraga, 2015)들은 다양한 조절 변인들이 개인의 선택적 노출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기도 했다.

본 연구는 온라인 미디어 환경에서 수용자의 기존 태도와 정치적 성향이 과학 정책 관련 기사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정치화된 정책 이슈 중 하나인 원자력에너지 관련 기사들에 대한 수용자의 선택적 노출 현상을 검증하고자 한다. 1978년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된 이후, 원자력 에너지는 우리나라 에너지 자립과 경제 안정을 위한 주요 에너지원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불안감을 일으켰고, 특히 이후 관련 기관 내 부정부패 사건들로 인해 깊어진 공중의 불신은 원자력 산업과 에너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확대되었다. 이형민, 박진우, 그리고 한동섭(2015)은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갈등과 정치적 담론은 “정부 주도의 원자력 정책 추진, 시민 단체들의 반발, 지역 주민과 정부 간 대립, 지역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점철된 역사”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한다(237쪽). 원자력 발전 관련 정책에 있어 다양한 의견 조정과 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에너지 이

슈가 정치적 갈등 문제로 고착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언론은 원자력 발전 관련 이슈를 보도할 때 효용 또는 위험 중 어느 한쪽으로 프레임팅된 뉴스를 구성하는 경향이 있으며(신해정·금희조·정성은, 2012), 특히 언론 매체가 표방하는 정파성에 따라 그러한 편향성이 드러나고 있다(김원용·이동훈, 2005; 박진우·이형민·한동섭, 2014). 즉, 보수적 정파성을 띠는 매체에서는 원자력의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진보적 정파성을 띠는 매체에서는 원자력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이형민·박진우·한동섭, 2015).

이에 본 연구는, 원자력 에너지의 효용을 강조하는 뉴스를 접한 개인들에게 추가적으로 긍정적/부정적 기사들을 선택해 읽도록 함으로써, 원자력 에너지 기사에 대한 선택적 노출 혹은 교차 노출 행위를 검증하였다. 또한 수용자의 정치적 성향(보수 혹은 진보)이 개인의 원자력 기사 선택 과정에 미치는 조절 효과(moderating effect)를 살펴보았다. 본 실험 연구는 선택적 노출 이론을 과학 정책 이슈에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문헌을 확장하고, 특히 개인의 정치 성향이라는 조절 변인의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선택적 노출 이론 발전에 공헌하고자 한다. 또한 온라인 뉴스 환경에서 개인의 선택적 노출 경향이 가져올 수 있는 양극화(polarization) 현상을 지양하고, 여러 정책 이슈에 대해 균형 잡힌 정보 습득과 의견 교환을 조성하기 위한 실무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 이론적 배경

### 선택적 노출

특정 이슈에 대해 양분된 의견이 형성된 경우, 자신의 의견에 일치하거나 부합하는 정보를 선호하여 선택하는 경향을 선택적 노출이라고 한다(Stroud, 2007, 2010). 노블락-웨스터윅과 멩(Knoblock-Westerwick & Meng, 2011)은 이를 “자신의 태도에 일치하는 메시지에 대한 선호도”라고 정의했고, 아이앵거와 한(Iyengar & Hahn, 2009)은 “정보에 대한 접근과 회피의 경향”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사람들은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태도나 의견, 신념을 지키고자 하며, 그에 부합하는 정보는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Hart et al., 2009). 뉴미디어 환경에서 다양한 매체와 채널, 메시지를 선택해 볼 수 있는 수용자의 능력이 커지면서, 선택적 노출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스트라우드(Stroud, 2007)는 선거 기간 동안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 성향에 부합하는 언론 매체를 선택해서 이용하는 경향을 있음을 발견했다. 가렛(Garrett, 2009)은 온라인 행동 추적(web-behavior tracking)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 의견에 상반되는 다른 정보보다 일치하는 정보를 더 많이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 알센눅스와 동료들(Arceneaux et al., 2013)도 사람들은 자신의 이념에 부합하는 미디어에 주로 노출되며, 이러한 선택적 노출 경향은 기존의 태도를 더욱 확고하게 함으로써 양극화(polarization)를 촉진한다고 주장했다. 김(Kim, 2015)의 연구 역시 정치

커뮤니케이션에서 개인의 선택적 노출이 양극화된 정치적 태도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노블락-웨스터위크와 멩(Knoblock-Westerwick & Meng, 2011)은 보수 대 진보의 정치적 구도를 넘어서, 보다 다양한 정책 이슈들을 가지고 선택적 노출 경향을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총기 소유, 낙태, 건강보험 규제, 최저임금 등의 정책 이슈에 대해 긍정적/부정적 뉴스를 선택해서 읽게 하였으며, 그 결과 모든 이슈에 대해 개인의 기존 태도에 부합하는 뉴스를 선택하는 선택적 노출 경향이 나타남을 검증하였다. 원자력 에너지 관련 이슈에서의 선택적 노출 연구는 제한적이다. 이형민 외(2015)의 연구는 언론의 정파성에 따라 편향적으로 보도되어 온 원자력 정책 분야에서 수용자의 선택적 뉴스 노출 현상을 살펴본 초기 서베이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본 연구는 실험 연구를 통해서 이형민 외(2015)의 연구 결과를 확장하고자 한다. 즉, 참여자들에게 온라인상에서 직접 부정적 혹은 긍정적 원자력 에너지 관련 뉴스들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실제 수용자들의 원자력 기사 선택 경향을 검증하고 더 나아가 조절 변인의 효과도 탐색할 것이다.

한편, 일련의 연구들은 수용자들이 자신의 기존 의견과 상반된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선택하는 “교차 노출”(Mutz, 2006; Wojcieszak & Mutz, 2009) 현상을 발견하기도 했다(최윤정 · 이종혁, 2011; Iyengar et al., 2008; Horrigan et al., 2004; Redlawsk, 2002; Taber & Lodge, 2006). 김미라와 민영(2014)은 교차 노출을 “선택적 노출과는 상반되는 현상으로 자신의 의견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를 접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이는 수용자

가가 결과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예: 지지하는 정치인이 선거에서 낙선할 것이 유력할 경우)에서 일어나는 인지 부조화를 해소하는 또 다른 전략이라고 주장하였다. 최윤정과 이종혁(2011)은 한미 FTA에 대한 기사 선택 실험을 통해서, 선택적 노출 그룹과 교차 노출 그룹이 모두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최연태(2012) 역시 중앙 정부 부처 웹사이트 이용도를 분석한 결과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개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과 반대되는 정보에 더 접촉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이를 정보의 효용성(utility)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온라인 뉴스 제목에서 발생한 인지 부조화가 뉴스의 효용성 인식과 기사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종혁(2009)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양분화된 사회 이슈에 대하여 온라인 정보를 선택하는 개인의 경향에 대해서, 기존 문헌은 선택 노출과 교차 노출 두 현상을 모두 발견했다. 이에 본 연구는, 원자력 발전의 효용을 강조하는 뉴스를 접한 개인들에게 추가적으로 긍정적/부정적 기사들을 선택해 읽도록 함으로써, 원자력 에너지 기사에 대한 선택적 노출 혹은 교차 노출 행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원자력 에너지 이슈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 기사들을 선택할 때, 선택적 노출과 교차 노출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 인지 부조화와 메시지 신뢰성

많은 학자들이 선택적 노출 현상의 원인들을 다양하게 설명해 왔다. 첫째, 클래퍼(Klapper, 1960)

는 개인이 자신의 신념에 상반되는 정보를 접했을 때 느끼는 심리적 불편함을 느끼고, 이러한 심리적 긴장 상태, 즉 인지 부조화(Festinger, 1957)를 해소하기 위해서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에 선택적으로 접촉한다고 주장했다. 인지 부조화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선택적 노출 경향은 많은 연구자들이 인용해 왔다(김미라·민영, 2014). 두 번째로, 또 다른 학자들은 메시지 신뢰성(message credibility)의 인식 차이에서 그 원인을 찾고자 하였다. 기존의 의견이나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가 그렇지 않은 정보보다 더 설득력이 있고 신뢰할 만하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들을 의도적으로 더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Fischer, Schulz-Hardt, & Frey, 2008; Lord, Ross, & Lepper, 1979; Stroud, 2011). 마지막으로, 정보의 인지적 처리 과정(cognitive information processing) 관점에서 선택적 노출 현상을 설명한 학자들도 있다(Edwards & Smith, 1996; Smith, Fabrigar, & Norris, 2008; Ziemke, 1980). 즉, 자신의 신념과 다른 정보를 처리할 경우, 많은 인지적 노력(cognitive resources)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비슷한 정보들을 선호한다는 것이다(Kim, 2015).

한편, 대부분 연구들은 선택적 노출의 원인에 대해서 이론적 가정을 통해 설명할 뿐, 실증적인 데이터를 통해 검증은 하지 않았다. 즉, 선택적 노출 혹은 교차 노출 현상의 검증에 초점을 맞춘 기존 문헌들이 대부분이며, 그러한 현상이 어떠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통해 일어났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원자력 기사

에 대한 수용자의 선택적 노출 혹은 교차 노출 검증에서 더 나아가,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적 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된 두 가지 설명 요인, 인지 부조화와 메시지 신뢰성 인식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인지 부조화 이론에 기반하면, 원자력 발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집단은 긍정적인 의견을 가진 집단에 비해서 원자력 발전의 효용을 강조하는 뉴스를 접했을 때 더 큰 심리적 불편함을 느낄 것이고, 그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더 큰 선택적 노출 경향을 보일 것이다. 페스팅거(Festinger, 1957)가 언급한 심리적 불편함(psychological discomfort)에 대하여 많은 연구자들은, 자신의 선택이 틀릴 수 있다는 불안감, 혹은 자아 개념에 대한 위협(threat to self-concept)으로서의 심리적 불안감(anxiety)으로 해석하여 실증해 왔다(e.g., Aronson, 1969; Suinn, 1965; Menasco & Hawkins, 1978). 이는 개인의 특성으로 갖는 불안 성향(trait)과는 다른 개념으로서(Hawkins, 1972), 특정 상황에 의해 유발되는 불안 상태(status)를 의미한다(Menasco & Hawkins, 1978).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본인의 의견과 상반되는 기사를 접했을 때 느끼는 인지 부조화 상태를 측정함에 있어 피실험자의 상태적 불안감으로 정의하여 조작화하고자 한다(김진영, 2015; 차배근, 2003). 그러므로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가설을 통해 인지 부조화 해소 가정을 검증할 것이다.

연구가설 1: 원자력 에너지의 효용성 강조 뉴스를 접

했을 때,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존 태도가 부정적인 반대 집단은, 긍정적인 지지 집단에 비해서, 불안감을 더 많이 느낄 것이다.

연구가설 2: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존 태도가 부정적인 반대 집단은, 긍정적인 지지 집단에 비해서, 선택적 노출 경향이 더 높을 것이다.

다음으로, 자신의 의견에 부합하는 정보가 상반되는 정보에 비해 더 믿을 만하게 인식되고, 그러한 신뢰성 인식의 차이가 선택적 노출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이 있다. 예를 들어, 피셔와 그의 동료들(Fischer, Fischer, Weisweiler, & Frey, 2010; Fischer, Jonas, Frey, & Schulz-Hardt, 2005; Fischer, Schulz-Hardt, & Frey, 2008)은, 수용자가 자신의 태도와 일치하는 정보를 그렇지 않은 정보보다 더 긍정적이고 정확한 정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선택적 노출 경향이 증가한다고 하면서, 이를 “확증 정보 판단 과정(confirmatory information evaluation processes)”이라고 칭했다. 테버와 로지(Taber & Lodge, 2006)의 연구도 비슷한 맥락에서, 수용자들이 총기 규제 또는 차별 철폐 조치(affirmative action) 관련 메시지를 선택할 때, 자신의 신념과 상반되는 메시지를 더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동기화된 회의주의(motivated skepticism)” 경향을 검증했다. 구체적으로, 총기 규제 관련 이슈를 가지고 수행한 실험 연구에서(Taber & Lodge, 2006), 피실험자들은 자신의 기존 태도(찬성 혹은 반대)와 일치하는 메시지를 더 설득력 있다고 평가했고(“a prior attitude effect”, p. 757), 자신의

의견과 불일치하는 메시지를 반박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사용했으며(“a disconfirmation bias”, p. 757), 다음으로 어떤 정보를 읽을 것인지 선택할 때는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 메시지를 더 많이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a confirmation bias”, p. 757). 결과적으로, 실험 이후 총기 규제 관련 이슈에 대한 피험자들의 의견은 더 양극화되는 경향을 보였다(“attitude polarization”, p. 764).

이러한 문헌 결과들을 본 연구에 적용하자면, 원자력 발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집단은 긍정적인 의견을 가진 집단에 비해서, 원자력 효용을 강조하는 뉴스에 대한 메시지 신뢰도가 낮을 것이라고 예측된다. 그리고 메시지 신뢰도가 낮을수록, 그에 상반되는 부정적인 기사를 선택하려는 선택적 노출의 경향이 높아질 것이다. 반면, 원자력 발전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가진 지지 집단은, 원자력 효용성 강조 기사에 대한 메시지 신뢰도가 높을수록 원자력 에너지에 긍정적인 기사를 선호하는 선택적 노출의 경향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가설을 통해, 메시지 신뢰성 가정을 검증할 것이다.

연구가설 3: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존 태도가 부정적인 반대 집단은, 긍정적인 지지 집단에 비해서, 원자력 에너지의 효용성 강조 기사에 대한 메시지 신뢰도가 낮을 것이다.

연구가설 4: 원자력 발전 반대 집단의 경우, 원자력 에너지 기사에 대한 메시지 신뢰도는 선택적 노출과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즉, 원자력 에너지의 효

용성 강조 기사에 대한 메시지 신뢰도가 낮을수록, 원자력 에너지에 부정적인 기사를 선호하는 선택적 노출의 경향이 높아질 것이다.

연구가설 5: 원자력 발전 찬성 집단의 경우, 원자력 에너지 기사에 대한 메시지 신뢰도는 선택적 노출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즉, 원자력 에너지의 효용성 강조 기사에 대한 메시지 신뢰도가 높을수록, 원자력 에너지에 긍정적인 기사를 선호하는 선택적 노출의 경향이 높아질 것이다.

### 정치적 성향의 조절 효과

한편, 수용자의 정보 추구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 변인들은 다양한 실증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 왔다. 노블락-웨스터윅(Knoblock-Westerwick, 2014)는 수용자의 사회 그룹(소수 집단 대 다수 집단), 정치적 자아 개념(political self-concept), 그리고 사회 이슈에 대한 중요성 인식 수준에 따라서 선택적 노출 경향이 더 높아짐을 밝혔다. 그 외에도 수용자의 정치 성향(Iyengar et al., 2008; Messing & Westwood, 2012; Vraga, 2015), 추론 동기 성향(Hart et al., 2009; 김미라·민영, 2014), 인지 욕구 성향(need for cognition: Tsfati, & Cappella, 2005), 태도의 강도(attitude strength: Brannon, 2007), 정치 지식(Stroud, 2011; Taber & Lodge, 2006), 그리고 선택할 정보의 수나 선택의 방식(순차적 혹은 동시적) 등의 요인이 선택적 노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에서 수용자의 정치 성향은, 가장 많이 연구된 조절 변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알센녹스와 동료들(Arceneaux et al.,

2013)은 수용자들이 자신의 정치 이념에 부합하는 미디어에 주로 노출되며, 이러한 선택적 노출 경향이 여론의 양극화(polarization)를 촉진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보수 정당 지지 집단이 보수적 미디어를 더 많이 선택하고, 진보 정당 지지 집단이 진보적 미디어를 더 많이 선택한다는 연구(Stroud, 2007) 외에도, 이러한 선택적 노출 경향이 보수 정당 지지 집단에게서 특히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Garrett, 2009; Iyengar et al., 2008; Mutz, 2006; Nam, Jost, & van Bavel, 2013; Vraga, 2015). 수용자 정치 성향의 조절 효과는, 원자력 에너지 이슈에 대한 선택적 노출을 검증하려는 본 연구에 특히 의미가 있다. 앞서 논의되었듯이 우리나라에서의 원자력 발전 이슈는 보수 혹은 진보의 정파성에 따라 지지 혹은 반대의 성향이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언론의 정파성에 따라 상이하게 프레임되어 온 주제이기 때문이다(신해정 외, 2012; 박진우 외, 2014). 이형민 외(2015)는 1970년 후반 이후 “정부 주도의 원자력 정책 추진, 시민 단체들의 반발, 지역 주민과 정부 간 대립, 지역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점철된 역사로 인해”(237쪽) 국내 원자력 발전 이슈가 정치적 갈등 담론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일련의 연구자들 역시 우리 사회에서 보수 진영은 원자력 발전에 긍정적인 반면, 진보 진영은 원자력 발전에 부정적인 경향이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언론의 정파성에 따른 프레임 경향에도 영향을 미쳤다(신해정 외, 2012; 박진우 외, 2014). 예를 들어 박진우 외(2014)는 2012년 고리 원자력발전소 블랙아웃 사고 이후 6개월간 보수 언론, 진보 언론,

지역 언론의 원자력 관련 보도 전체를 분석하였으며, 각 매체의 성격 별로 보도 프레임과 기사 논조, 취재원 활용 경향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수적 정파성을 띠는 매체에서는 원자력 발전의 효용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진보적 정파성을 띠는 매체에서는 원자력 발전의 부정적 측면이 더 강조되는 경향이 있었다. 수용자의 실제 정치적 성향이 원자력 에너지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역시 연구되어 왔다. 예를 들어 김대중, 정봉훈, 그리고 장정현(2013)은 설문 조사를 통해,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편익 및 비용 인식, 부정적/긍정적 감정, 그리고 수용성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즉, 본인의 정치 성향을 보수적이라고 응답할수록 원자력 발전에 대한 편익 인식과 긍정적 감정, 수용성은 증가하는 반면, 원자력 발전에 대한 비용 인식과 부정적 감정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진보적 정치 성향을 가진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이렇듯 원자력 에너지 관련 이슈가 언론과 개인의 정파성에 따라 상이하게 논의되어 왔다는 점에서, 원자력 에너지 관련 기사 선택에 있어 수용자의 정치적 성향이 조절 효과를 가질 것인가는 흥미로운 연구 주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용자의 기존 태도(지지 혹은 반대)와 정치적 성향(보수, 중도, 혹은 진보)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부정적/긍정적 기사들에 대한 선택에 어떠한 상호작용 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2: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존 태도(지지 혹은 반대)와 정치적 성향(보수, 중도, 혹은 진보)은 선택적

노출에 어떤 상호작용 효과를 가지는가?

## 연구 방법

### 실험 설계와 실험 절차

본 연구는 앞서 기술된 연구가설과 연구문제들을 탐색하기 위해서 유사 실험 연구(quasi-experiment)를 실행하였다. 주요 독립 변인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존 태도(지지 혹은 반대)와 정치 성향(보수, 중도, 혹은 진보)이며 주요 종속변인은 원자력 발전 효용 기사를 읽은 후의 불안감, 메시지 신뢰도, 그리고 이후 원자력 에너지 기사 선택 경향(선택적 노출 혹은 교차 노출)이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에 대한 참여자의 이슈 관심도는 통제 변인으로 측정되었다.

실험 참여자들은 만 19세 이상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전문 설문 기관을 통해 모집됐다. 1,000명의 이메일로 연구에 대한 간략한 내용과 설문 사이트 링크가 발송되었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총 180명 중 남성의 비율은 54.4%였으며, 연령 분포는 20대 22.2%, 30대 26.7%, 40대 23.3%, 50대 27.8%였다.

실험이 시작되면, 참여자는 먼저 여러 사회 이슈들에 대한 관심도와 태도의 수준을 측정하는 사전 노출 질문들(pre-exposure questions)에 답하였다. 원자력 이슈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곧바로 관련 기사를 읽을 경우, 이후 답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회 이슈들(다문화 확산, 원자력 발전, 복지 정책 확산, 환경보호 정책 강화)에 대한



의견을 함께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국가에너지포럼 관련 기사를 읽고, 그와 관련한 질문들에 답하였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후, 다음 화면에서는 원자력 이슈와 관련된 10개 기사의 헤드라인과 리드 문장이 주어졌으며, 참여자들은 더 읽고 싶은 기사 총 5편을 선택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의 미디어 사용과 정치 성향, 사회 인구학적 변인들을 측정하였다. 마지막 화면에는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감사의 인사가 나오도록 하였다.

### 실험 자극물

원자력 발전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긍정적 기사 작성을 위해서, 실험 일정 직전에 개최된 국가에너지포럼을 보도하는 가상의 기사가 제작되었다. 기사는 지식경제부가 주관한 국가에너지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에너지 현안에 대해 토론한 내용을 다뤘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에너지원 중 하나로서의 원자력이 포럼의 주요 주제 중 하나로 보도되었으며, 원자력 발전의 경제적, 환경적 효율성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다음으로 참여자의 기사 선택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원자력 에너지 이슈와 관련된 10개 기사의 헤드라인과 리드 문장이 제작되었다. 다섯 편이 원자력 에너지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기사였으며(“온실가스 감축 위해 원전 필요”, “[이젠 원자력이대 프랑스 전력 80% 원전에 의존”, “4세대 원전, 한국이 독창적인 기술 개발 선도”, “한울원전 국내 원자력 발전량의 28.3%... ‘안전 이상 무’”, “원전에서 국가 미래에너지 답 찾은 체코, 프랑스... 저

탄소 대응”), 다섯 편이 원자력 에너지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기사였다(“원전 반대 그룹, 원전 문서 등 추가 공개”, “그린피스, 고리원전서 원전 반대 기습시위”, “폐원자로 해체 쪼쪼매는 일본... 원자로 더 짓겠다는 한국에 경종”, “녹색당, 영덕원전 반대 활동 개시”, “안전 한국 답은 탈핵 현수막 들고 고공 시위하는 그린피스”). 헤드라인과 리드문장은 기존 매체에 실제로 보도된 내용을 참고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주제나 분량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기사들 간에 최대한 균형이 이뤄지도록 하였다. 열 편의 헤드라인과 리드문장은 동시에 한 화면에서 볼 수 있게 제시되었으며, 제시 순서는 참여자마다 무작위로 변경되도록 설정됐다.

### 변인 측정

####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존 태도

실험 자극물 기사를 읽기 전,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기존 태도를 측정하였다.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라는 문장에 5점 척도 리커트 스케일로 참여자의 태도를 표시하게 했다. 1은 “전혀 그렇지 않다”, 5는 “매우 그렇다”였다( $M = 3.13$ ,  $SD = 1.28$ ). 1과 2를 선택한 참여자들은 원자력 발전에 부정적인 반대 집단(80명)으로, 4와 5를 선택한 참여자들은 원자력 발전에 긍정적인 지지 집단(100명)으로 분류됐다.

#### 원자력 발전 이슈 관심도

실험 자극물 기사를 읽기 전, 원자력 발전 이슈에

대한 기존 관심도를 측정하였다. “나는 원자력 발전 이슈에 관심이 많다”라는 문장에 5점 척도 리커트 스케일로 참여자의 관심도를 표시하게 했다(박웅기, 2013). 1은 “전혀 그렇지 않다”, 5는 “매우 그렇다”였다( $M = 3.37, SD = .98$ ).

### 불안감

원자력 에너지의 효용을 강조한 자극물 기사를 읽은 후, 참여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측정하기 위해, “본 기사를 읽으면서 나는 불안의 감정을 느꼈다”라는 문장에 5점 척도로 참여자의 감정을 표시하게 했다. 1은 “전혀 그렇지 않다”, 5는 “매우 그렇다”였다( $M = 2.76, SD = 1.07$ ).

### 메시지 신뢰도

원자력 에너지의 효용을 강조한 자극물 기사에 대한 참여자의 메시지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세 가지 문항이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부정확하다/정확하다’, ‘신뢰할 수 없다/신뢰할 수 있다’, ‘믿을 수 없다/믿을 만하다’. 세 문항에 대한 답변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Cronbach  $\alpha = .91, M = 3.03, SD = .94$ ).

### 선택적 노출

참여자들의 원자력 에너지 관련 기사 선택, 구체적으로 “선택적 노출” 변인은 기존의 선택적 노출 문헌을 기반으로 측정하였다(김미라·민영, 2014). 원자력 에너지 관련 기사 10개의 헤드라인과 리드 문장을 제작하여, 참여자들에게 이 중 가장 읽고 싶은 기사 5편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10편 중 5편이

원자력 에너지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기사였으며, 나머지 5편이 원자력 에너지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기사였다.

즉, 참여자들에게 원자력 에너지 이슈와 관련된 10개 기사의 헤드라인과 리드 문장이 주어졌으며, 참여자들은 추가적으로 더 읽고 싶은 기사 총 5편을 선택하였다. 기사 한 편당 1점을 부여하였으며,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 ‘긍정적 기사 선택’( $M = 2.45, SD = 1.26$ ) 과 ‘부정적 기사 선택’( $M = 2.55, SD = 1.27$ ) 이 각각 최소 0점에서 5점의 범위를 가졌다.

피험자의 선택은 데이터베이스에 자동 기록됐으며, 개인의 기존 태도와 일치하는 기사를 선택한 경우 “선택적 노출”로 코딩했다. 즉, 원자력 발전 반대 집단에 속한 개인이 원자력 에너지에 부정적인 기사를 선택한 경우, 혹은 원자력 발전 지지 집단에 속한 개인이 원자력 에너지에 긍정적인 기사를 선택한 경우, 선택적 노출로 코딩했다(김미라·민영, 2014). “선택적 노출” 변인 역시, 최소 0점에서 5점의 범위를 가질 수 있었다( $M = 3.17, SD = 1.07$ ).

### 정치 성향

참여자의 정치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나의 성향은 \_\_\_\_\_ 적이다”라는 문장에 7점 척도로 답변하게 하였다. 1은 “보수”, 7는 “진보”였다. 1, 2, 3을 선택한 참여자들은 보수 성향 집단(51명)으로, 4를 선택한 참여자들은 중도 성향 집단(72명), 5, 6, 7을 선택한 참여자들은 진보 성향 집단(56명)으로 분류하였다.

## 분석 결과

〈연구문제 1〉은 원자력 에너지 이슈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 기사들을 선택할 때, 참여자들의 기사 선택 유형에 관한 것이었다. 원자력 발전 반대 집단과 지지 집단별로 나눠, 대응 표본 t 검정(paired t-test)을 통해 기사 선택 경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원자력 발전 반대 집단의 경우, 기존의 태도와 일치하는 부정적 기사( $M = 3.30, SD = 1.20$ )를 긍정적 기사( $M = 1.70, SD = 1.20$ )에 비해 더 많이 선택했다 [ $t(79) = 5.93, p < .001$ ]. 반면, 원자력 발전 지지 집단의 경우, 기존의 태도에 부합하는 긍정적 기사( $M = 3.07, SD = .93$ )를 부정적 기사( $M = 1.93, SD = .93$ )에 비해 더 많이 선택했다 [ $t(98) = 6.04, p < .001$ ]. 즉, 두 집단 모두 기존의 태도에 부합하는 기사들을 선호하는, 선택적 노출 경향을 보였다.

〈연구가설 1〉과 〈연구가설 2〉는 인지 부조화 이론에 기반하여, 원자력 발전 지지 집단에 비해서 반대 집단이 원자력 에너지의 효용을 강조하는 기사를 접했을 때 더 큰 심리적 불안감을 느낄 것이고(〈연구가설 1〉), 그러한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고자 더 큰 선택적 노출 경향을 보일 것(〈연구가설 2〉)이라고 가정하였다. 〈연구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존 태도(반대 집단 혹은 지지 집단)를 독립 변인으로 하여 독립 표본 t 검정(independent samples t-test)을 시행했다. 종속 변인은 심리적 불안감이었다. 검정 결과, 반대 집단( $M = 3.05, SD = 1.16$ )과 지지 집단( $M = 2.53, SD = .94$ )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발견되었다( $t(178) = 3.33, p < .001$ ). 즉, 원자력 발전의 효용을 강조하는 뉴스를 접했을 때, 원자력 발전 반대 집단이 지지 집단에 비해서 심리적으로 더 불안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연구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존 태도(반대 집단 혹은 지지 집단)를 독립 변인으로 하여 독립 표본 t 검정을 시행했다. 종속 변인은 선택적 노출 스코어였다. 검정 결과, 반대 집단( $M = 3.30, SD = 1.21$ )과 지지 집단( $M = 3.07, SD = .94$ ) 간에 선택적 노출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 $t(177) = 1.4, p > .05$ ]. 그러므로 〈연구가설 1〉은 지지된 반면, 〈연구가설 2〉는 기각되었다.

다음 가설들은 메시지 신뢰도 문헌에 기반하여, 원자력 발전 지지 집단에 비해서 반대 집단이 원자력 에너지 효용을 강조하는 기사를 접했을 때 메시지 신뢰도가 더 낮을 것이고(〈연구가설 3〉),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선택적 노출 경향에 영향을 미칠 것(〈연구가설 4〉, 〈연구가설 5〉)을 가정하였다. 〈연구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존 태도(반대 집단 혹은 지지 집단)를 독립 변인으로 하여 독립 표본 t 검정을 시행했다. 종속 변인은 메시지 신뢰도였다. 검정 결과, 반대 집단( $M = 2.45, SD = .86$ )과 지지 집단( $M = 3.49, SD = .73$ )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t(178) = 8.83, p < .001$ ). 즉, 원자력 에너지 효용을 강조하는 기사에 대해서, 원자력 발전 반대 집단의 메시지 신뢰도가 지지 집단에 비해서 더 낮은 경향을 보였다.

〈연구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

반대 집단에 대하여 회귀 검정(regression test)을 시행했다. 종속 변인은 원자력 에너지 기사에 대한 메시지 신뢰도였고, 종속 변인은 선택적 노출이었다. 검정 결과, 메시지 신뢰도와 선택적 노출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adjusted  $R^2 = .168$ ,  $F(1, 78) = 16.99$ ,  $p < .001$ ,  $\beta = -.423$ ,  $t = -4.121$ ( $p < .001$ )]. 즉, 원자력 발전 반대 집단에 속한 개인의 경우, 자신이 읽은 원자력 에너지 효율성 강조 기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수록, 이후 원자력 에너지에 부정적인 기사들을 선택하여 읽으려는 선택적 노출의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연구가설 5〉를 검정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 지지 집단에 대하여 같은 변인으로 회귀 검정을 시

행했다. 검정 결과, 메시지 신뢰도와 선택적 노출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p > .05$ ). 즉, 원자력 발전 지지 집단의 경우, 원자력 발전에 대해 긍정적인 기사에 대한 신뢰도와 원자력 에너지 기사 선택 경향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그러므로 〈연구가설 3〉과 〈연구가설 5〉는 지지되었고, 〈연구가설 4〉는 기각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2〉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존 태도(반대 혹은 지지)와 정치적 성향(보수, 중도, 혹은 진보)이 원자력 기사에 대한 선택적 노출에 어떤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는지 분석했다. 이를 위해서 원자력 태도와 정치적 성향 두 변인을 독립 변인으로 하여 공분산 분석(ANCOVA)을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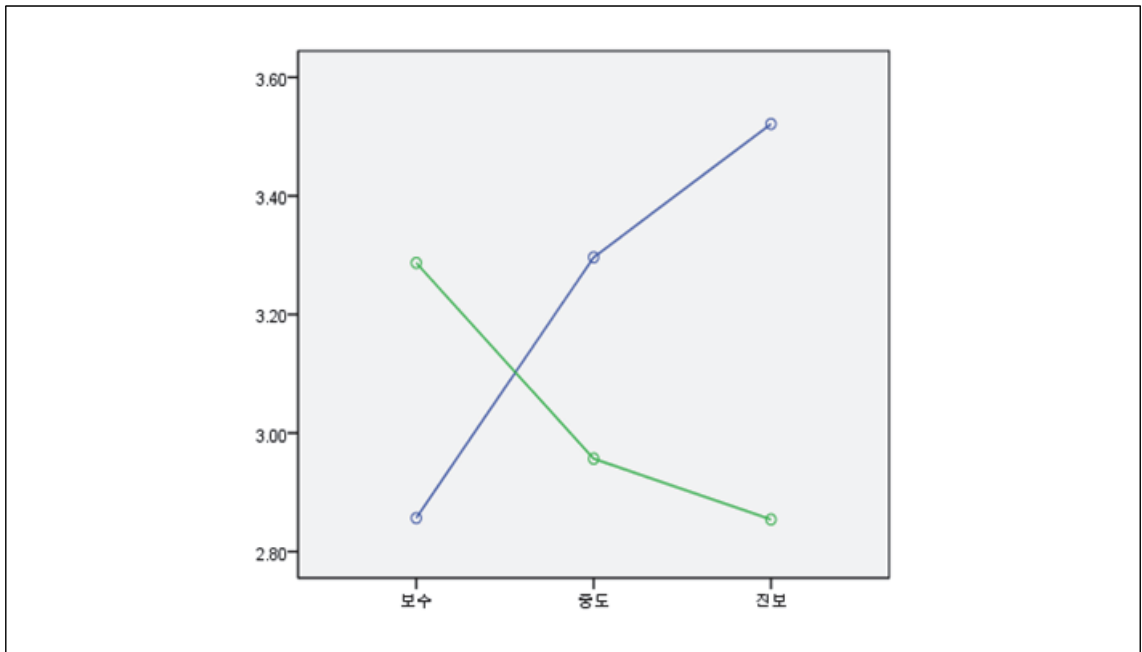


Figure 1.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존 태도와 정치적 성향의 상호작용 효과

하였다. 종속 변인은 선택적 노출이었으며, 원자력 발전 이슈에 대한 관심도는 공변량(covariate)으로 통제됐다. 검정 결과, 원자력 발전에 대한 태도 [ $F(1,172) = 1.24, p > .05, \eta^2 = .01$ ]와 정치적 성향 [ $F(2, 172) = .14, p > .05, \eta^2 = .002$ ]에 대한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두 변인 간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지 않음 [ $F(2, 172) = 3.10, p < .05, \eta^2 = .04$ ].

(Figure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진보 성향 개인들의 경우, 원자력 발전 반대 집단에서 선택적 노출이 높은 반면( $M = 3.50, SD = 1.22$ ), 지지 집단에서는 선택적 노출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M = 2.87, SD = .95$ ). 보수 성향 개인들의 경우 이러한 패턴은 반대로 바뀌었다. 즉, 보수 성향 개인들의 경우, 원자력 발전 반대 집단에서 선택적 노출이 낮은 반면( $M = 2.85, SD = 1.14$ ), 지지 집단에서 선택적 노출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M = 3.29, SD = 1.01$ ). 중도 성향 개인들의 경우, 패턴은 진보 성향 개인들과 유사했으나, 반대 집단( $M = 3.29, SD = 1.20$ ) 대 지지 집단( $M = 2.97, SD = .83$ )의 차이가 진보 성향에 비해 적었다. 즉, 원자력에 대한 기존 태도가 개인의 정파적 성향과 일치하는 경우(진보 성향의 개인이 원자력을 반대하거나, 혹은 보수 성향의 개인이 원자력을 지지하는 경우), 선택적 노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대로, 개인의 정파적 성향과 일치하지 않는 원자력 태도를 갖고 있는 경우(진보 성향의 개인이 원자력을 지지하거나, 혹은 보수 성향의 개인이 원자력을 반대하는 경우)에는, 선택적 노출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 논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양분화된 정책 이슈인 원자력 발전 분야 기사에 대한 수용자의 선택적 노출 현상을 탐색했다. 선택적 노출에 관한 다수의 문헌이 주로 정치, 선거 분야에서 설문 조사를 통해 유권자의 선택적 노출 현상을 연구한 것에 비해, 본 연구는 온라인 실험 연구를 통해 수용자의 기존 태도가 원자력 에너지 관련 기사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또한, 선택적 노출의 원인으로 설명되어 온 두 요인(인지 부조화와 메시지 신뢰성 인식)의 영향을 실증적 데이터로 탐색하였으며, 수용자의 정치적 성향이 선택적 노출에 미치는 조절 변인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선택적 노출 문헌을 한 단계 확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결과는 원자력 에너지 관련 기사 선택 결정에 있어 수용자의 선택적 노출 경향을 발견했다. 즉,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 기사들이 주어졌을 때, 실험 참여자들은 원자력 발전 필요성에 대한 본인의 기존 태도(지지 혹은 반대)에 부합하는 기사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원자력 발전 반대 집단과 지지 집단 모두에서 나타났다. 이는 원자력 에너지 관련 기사 선택에 있어 수용자의 선택적 노출 현상을 살펴 본 초기 서베이 연구(이형민 외, 2015)를 실제 온라인 실험을 통해 실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선택적 노출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탐색하고자, 두 가지 관점(인지 부조화 해소, 메

시지 신뢰성 인식 차이)에서 참여자의 선택적 노출 경향을 분석했다. 먼저 인지 부조화 이론에 기반하여, 원자력 발전 지지 집단에 비해서 반대 집단이 원자력 에너지의 효용을 강조하는 기사를 접했을 때 더 큰 심리적 불안감을 느낄 것이고(〈연구가설 1〉), 그러한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고자 더 큰 선택적 노출 경향을 보일 것(〈연구가설 2〉)이라고 가정하였다. 실험 결과, 〈연구가설 1〉은 지지되었으나 〈연구가설 2〉는 기각되었다. 즉, 원자력 에너지의 효용을 강조하는 뉴스를 접했을 때, 원자력 발전 반대 집단이 지지 집단에 비해서 심리적으로 더 불안감을 느꼈으나, 이러한 불안감의 차이가 직접적으로 선택적 노출의 차이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원자력 발전 지지 집단의 경우, 반대 집단에 비해 불안한 감정을 덜 느끼기는 했으나 반대 집단과 유사한 수준의 선택적 노출 경향을 보인 것이다. 이는 선택적 노출이 단지 부정적 감정 해소라는 하나의 원인으로 결정되기보다는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을 받는 심리적 메커니즘에 기인함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또 다른 변인, 메시지 신뢰도 인식의 영향을 검증했다. 구체적으로 원자력 발전 지지 집단에 비해서 반대 집단이 원자력 효용을 강조하는 기사를 접했을 때 메시지 신뢰도가 더 낮을 것이고(〈연구가설 3〉),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선택적 노출 경향에 영향을 미칠 것(〈연구가설 4〉, 〈연구가설 5〉)이라는 가정이었다. 실험 결과, 원자력 에너지의 효용 강조 기사에 대해 원자력 발전 반대 집단의 메시지 신뢰도가 지지 집단에 비해서 더 낮았다(〈연구가설 3〉 지지). 즉, 원자력 발전 반대 집단에 속한 개인의 경우, 자신이 읽은 원자력

효용성 강조 기사에 대한 신뢰도를 더 낮게 평가하였다. 또한 이렇게 낮은 메시지 신뢰도는 반대 집단의 선택적 노출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연구가설 4〉 지지). 즉, 원자력 발전 반대 집단에 속한 개인의 경우, 자신이 읽은 원자력 에너지의 효용성 강조 기사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이후 원자력 에너지에 부정적인 기사들을 선택하여 읽으려는 선택적 노출의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인의 태도와 일치하는 정보를 더 믿을 만하다고 판단하는 반면, 상반되는 정보는 더 비판적으로 평가한다는 기존 문헌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확증 정보 판단 과정”(Fischer & Greitemeyer, 2010) 혹은 “동기화된 회의주의”(Taber & Lodge, 2006) 경향은 이어지는 기사 선택에 있어서 선택적 노출의 경향을 증가시켰다. 반면, 메시지 신뢰도 인식과 선택적 노출 간의 이러한 상관관계는, 원자력 발전 지지 집단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원자력 효용 강조 기사에 대해, 원자력 발전 지지 집단의 메시지 신뢰도가 반대 집단에 비해서 더 높게 나타났으나, 그러한 높은 메시지 신뢰도는 지지 집단의 선택적 노출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 효용성(utility) 동기의 차이에 기인했을 수 있다. 자신의 의견에 상반되는 기사를 읽은 경우, 그 기사가 믿을 수 없고 부정확하다고 느낄수록 그에 상반되는 기사들에 대한 효용성 동기가 더 높아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자신의 의견에 부합하는 기사를 읽은 경우, 그 기사에 대한 신뢰도에 상관없이 굳이 더 비슷한 기사들을 읽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는 정보의 효용성을 인지하는 정보 선택의 과정

이, 결국 수용자의 가치와 판단을 바탕으로 하는 의도적 행위일 수밖에 없다는 이종혁(2009)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본 결과는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이 개인의 심리적 과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부정성 효과(negativity effect: Kanouse & Hanson, 1972; Baumeister, Bratslavsky, Finkenauer, & Vohs, 2001)로도 설명될 수 있다. 부정성 효과 문헌에 따르면, 긍정적인 감정, 생각, 혹은 사건에 비해서 부정적인 감정, 생각, 혹은 사건이(동일한 강도를 가졌다고 가정했을 때) 개인의 인지나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선거 관련 연구에 있어서, 후보자에 대한 긍정적 정보보다 부정적 정보에 의해 유권자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역시 이러한 부정성 효과로 설명되어 왔다(Klein, 1991, 1998). 본 연구의 경우, 원자력 발전 원자력 효용 기사를 읽은 후 경험한 부정적 생각(낮은 신뢰도 인식)이, 지지 집단이 경험한 긍정적 생각(높은 신뢰도 인식)보다 이후 기사 선택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선택적 노출 현상에 있어서 메시지 신뢰도 인식의 역할은, 정보 효용성 동기와 부정성 효과 측면에서 후속 연구들을 통해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용자의 기존 태도(반대 혹은 지지)와 정치적 성향(보수, 중도, 혹은 진보)이 원자력 에너지 관련 기사에 대한 선택적 노출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발견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존 태도가 개인의 정파적 성향과 일치하는 경우(즉, 진보 성향의 개인이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거나, 혹은 보수 성향의 개인이 원

자력 발전을 지지하는 경우), 선택적 노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대로, 개인의 정파적 성향과 일치하지 않는 원자력 발전 관련 태도를 갖고 있는 경우(즉, 진보 성향의 개인이 원자력 발전을 지지하거나, 혹은 보수 성향의 개인이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는 경우)에는 선택적 노출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견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파의 주류적 방향과 일치할 경우, 기사 선택에 있어 일치하는 정보에 대한 선택적 선호도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정치 성향과 정책 태도가 부합할 경우, 의견의 강도(Krosnick & Petty, 1995)가 더 커졌기 때문일 수 있다. 브랜넨과 그의 동료들(Brannon, Tagler, & Eagly, 2006)은 사형제도, 국제 분쟁, 낙태 등 사회 이슈에 대한 정보 선택에 있어서, 기존 태도의 강도가 강한 그룹에서 선택적 노출의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남을 발견했다. 이를 본 연구 결과에 적용해 보면, 원자력 발전 정책에 대한 수용자의 태도가 정파적 흐름과 일치할 경우 더 강한 의견 혹은 확신적 태도(attitudinal confidence: Sawicki et al., 2000)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견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파의 방향과 상반될 경우, 선택적 노출 경향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자신의 의견이 정파의 주류적 방향에 의해 확정되지 못함으로 인해 태도의 강도나 확신도가 감소했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은 태도 양가성(attitudinal ambivalence) 혹은 양면 가치 태도적 관점과도 연결된다. 양면 가치 태도는 하나의 대상에 대해 상반된 감정이나 가치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Thornton, 2011), 즉 개인의 내적 체계에

서 발생하는 상충 현상을 일컫는다(이진명·나중연, 2016). 크레이그와 그의 동료들(Craig, Martinez, Kane, & Gainous, 2005)은 어떤 정치적 이슈에 대해 많은 이들이 긍정적, 부정적 태도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고 하면서, 낙태 이슈에 대한 태도 양가성을 수용자의 개인적 의견과 정치적 태도 간의 가치 상충으로 설명하였다. 사위키와 그의 동료들(Sawicki et al., 2013)은 이러한 양면 가치 태도와 선택적 노출 간의 관계를 연구했는데, 관련 지식이 높을 경우에 양면 가치 태도가 높을수록 선택적 노출 경향이 낮아짐을 발견했다. 이는 개인이 내적 가치가 상충되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견과 상반되는 정보들도 접하고자 선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Sawicki et al., 2013).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사위키 외(Sawicki et al., 2013)의 주장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즉,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견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파의 방향과 상반될 경우 내적 가치가 상충되는 양면 가치 태도를 형성했을 수 있고, 이렇게 상충되는 양면 가치 태도를 해소하고자 자신의 의견과 상반된 정보들을 선택했을 수 있다. 정책 의견에 대한 수용자 태도의 강도와 양가성이 관련 정보에 대한 선택적 노출 경향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정책 이슈를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선택적 노출 관련 문헌을 확장하는 이론적 공헌뿐 아니라, 여러 정책 이슈에 대해 균형 잡힌 정보 습득의 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PR 실무자들을 위한 실무적 함의도 제시한다. 각기 다른 목표를 가진 조직 혹은 사회 주체들이 담론 경쟁을 벌이고 있는 공론의 장에서(김영옥, 2012), 서로의 입장과 의견에

대한 차이의 간극을 줄이고 민주적 합의를 도출하는 “합의 중심 PR 커뮤니케이션(consensus-oriented public relations)”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이형민 외, 2015). 원자력 발전과 같이 특정 이슈에 대해 양분된 의견이 형성된 경우, 수용자가 자신의 의견에 일치하거나 부합하는 정보만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피하려는 선택적 노출이 심화된다면 균형 잡힌 정보와 의견의 교환을 통한 민주적 숙의(deliberation) 과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PR 실무자들은 수용자들이 편향된 프레임에 선택적으로 노출되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을 상이하게 형성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보다 정교한 소통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 결과 수용자가 본인의 의견과 상반되는 기사를 읽었을 때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고 기사에 대한 신뢰도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특히 기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수록 그와 상반되는 기사들을 선택하여 읽으려는 선택적 노출 경향이 더 강해짐을 볼 수 있었다.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한 기사 혹은 메시지의 경우, 그 메시지가 포함하고 있는 정보의 질과 신뢰도가 향후 수용자의 기사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PR 실무자는 원자력 에너지와 같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책 이슈에 대해 메시지를 개발할 때, 전문가 인용, 통계 수치 제공 등 객관적이고 사실 중심의 정보를 강조함으로써 메시지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비록 원자력 발전 이슈가 정치적 쟁점으로서 언론의 정파적 프레임에 의해 논의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나타났듯이 시



민들의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태도와 행동 의도에  
 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 것 역시 사실이다. 예를  
 들어 개인의 정치 성향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태도  
 나 기사 선택 성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견이 자신이 지지하  
 는 정파의 방향과 상반되는 그룹도 존재했으며, 그  
 러한 경우 선택적 노출 경향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다. 이렇게 수용자의 내적 가치들이 불일치할 수  
 있는 정책 이슈의 경우, 상충되는 가치 태도를 가지  
 고 있는 수용자들을 주요한 타깃 공중으로 설정하  
 여, 세분화된 메시지를 개발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을 인지하  
 고 있는 진보 성향의 수용자들에게는, 진보적 가치  
 와 공명하는 원자력 에너지의 측면(온실가스 감축  
 등 친환경적 특성, 민주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  
 한 원자력 정책 결정 강조 등)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듯 원자력 발전 이슈의 경  
 우, 해당 이슈가 단순히 보수 혹은 진보의 양분화된  
 정치적 쟁점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며, 경제· 환  
 경· 안보· 과학기술 등 다양한 사회 이슈를 고려  
 하여 유연하게 접근해야 하는 정책 이슈라는 점을  
 강조하는 메시지 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세분화된 공중에 접근하거나 정교하게 맞  
 춤화된 메시지를 전달함에 있어, 언론 등 대중매체  
 활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PR 실무자들은 언론의  
 게이트키퍼(gatekeeping: Shoemaker, 1991) 과  
 정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다양  
 한 미디어 채널들을 통해 세분화된 공중과 직접 소  
 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부 혹은  
 원자력 유관 기관의 웹사이트나 다양한 소셜 미디

어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메시지를 공중에게 빠르  
 게, 직접 전달하기 위한 다각화 전략이 필요할 것이  
 다. 기존에 원자력 유관 기관들이 대국민 홍보를 위  
 해 정파적 방향이 일치하는 언론 매체들을 중심으  
 로 일방향적인 정보 전달 중심의 활동에 치중해 왔  
 다면, 이제는 공중의 다양한 성향과 인식을 이해함  
 으으로써 다양한 채널을 통한 쌍방향 소통 전략을 세  
 울 필요가 있다. 즉, “원자력 발전 찬성 혹은 반대”  
 라는 경직된 정치적 결정으로서 고착된 틀을 벗어  
 나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국가적 정책 이  
 슈임을 인정하고, 균형 잡힌 정보 습득과 의견 교환  
 을 통해 합의를 이루는 “합의 중심 PR커뮤니케이  
 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결과들은 향후 후속 연구  
 를 통해 추가적으로 검증 및 확장될 필요가 있다.  
 본 실험은 참여자들이 기사의 제목과 리드문장을  
 보고 결정한 기사 선택 경향을 분석하였으며, 참  
 여자들이 선택한 기사들은 실제 제공되지 않았다.  
 후속 실험에서 참여자가 선택한 기사들을 실제로  
 읽게 한다면, 일련의 선택적 노출 문헌에서의 같  
 이(Knoblock-Westerwick, 2014) 기사별 노출  
 시간의 차이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택적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인이나 조절 변인뿐  
 아니라, 선택적 노출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종속 변  
 인들도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선택  
 적 노출을 통해 관련 기사들을 읽은 후 참여자들의  
 기존 태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선택적 노  
 출의 매개 효과는 어떠한지에 대한 분석도 유용한  
 이론적, 실무적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한편, 본 연  
 구의 결과를 설명하는 데 사용된 정보 효용성, 의견

강도, 양면 가치 태도 등의 개념이 실제 실험에서 측정 및 분석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또 다른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정책 기사에 대한 선택적 노출 현상에 있어 상기 개념들의 영향 가능성이 본 실험을 통해 입증된 만큼,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정밀한 측정과 실험 설계를 통해 본 연구 결과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주어진 원자력 에너지 관련 기사를 읽은 후 수용자의 감정적(불안감), 인지적(메시지 신뢰도) 반응이 향후 관련 기사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많은 선택적 노출 연구가, 기사 제목에 대한 수용자의 인지 부조화를 선택적 노출의 원인으로 분석한 것에 반해, 본 연구는 본인이 실제 읽은 기사에 대한 반응이 향후 이어지는 관련 기사들에

대한 선택적 노출 경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검증했다. 이는 기사 검색이 용이한 뉴미디어 환경에서 수용자들이 특정 이슈에 대해 주도적으로 기사들을 검색하면서 정보를 찾고 소비, 확장해 나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후속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보다 확장하여, 특정 이슈에 대한 온라인 기사와 그에 딸린 댓글들에 대한 수용자의 감정적, 인지적 반응이 이후 관련 기사들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동일한 기사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이 뉴스 매체 성향(보수 혹은 진보)에 따라 달라지는 정보원 효과(message source effect)가 선택적 노출 과정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탐색함으로써 보다 종합적인 이론적 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김대중·정봉훈·장정현 (2013). 인지 및 감정 요인이 원자력 발전의 개인적·사회적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 차이에 관한 비교 연구: 원전 홍보 방안 수립에 주는 시사점 탐색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7권 5호, 214-238.
- 김미라·민영 (2014). 지지 후보와 추론 동기가 유권자의 선택적 노출과 교차노출에 미치는 영향: 선거에서의 인지부조화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8권 2호, 7-49.
- 김영욱 (2012). 담론 경쟁으로서 PR 커뮤니케이션: 새로운 패러다임과 이론의 방향성 설정. <커뮤니케이션 이론>, 8권 1호, 352-386.
- 김진영 (2015). <자아 커뮤니케이션>. 서울: 커뮤니케이션 선복스.
- 양승목 (1993). 매스미디어의 공신력과 선택적 노출. <언론과 사회>, 1권 1호, 110-137.
- 박진우·이형민·한동섭 (2014). 고리 원자력 발전소 블랙아웃 사고에 대한 매체별 보도 프레임 분석. <언론과학연구>, 14권 2호, 31-74.
- 신해정·금희조·정성은 (2012). 원자력 에너지 이슈의 이득-손실 틀짓기 효과: 개인의 물질/탈물질주의적 가치 성향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6권 5호, 190-215.
- 이종혁 (2009). 뉴스의 일탈성이 기사 선택에 미치는 영향 - 진화론, 인지부조화, 정보 효용성을 바탕으로 모델 도출. <한국언론학보>, 53권 6호, 241-261.
- 이종혁 (2014). 뉴스 일탈성(deviance)의 방향과 유형이 기사 선택에 미치는 영향: 부정성(negativity)과 규범성(normativity)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8권 2호, 88-110.
- 이진명·나종연 (2016).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양면가치태도와 내적 갈등이 소비자의 모바일 쇼핑 만족에 미치는 영향: 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27권 3호, 147-170.
- 이형민·박진우·한동섭 (2015). PR 커뮤니케이션의 담론 경쟁과 편향적 언론 보도: 원자력 이슈에 대한 여론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26권 6호, 233-261.
- 차배근 (1988). <커뮤니케이션학 개론>. 서울: 세영사.
- 최연태 (2012). 청와대 홈페이지 이용 상의 선택적 노출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50권 1호, 149-177.
- 최윤정·이종혁 (2011). 온라인 뉴스 사이트에서의 기사 선택에 관한 연구: 반대의견 노출과 의견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5권 4호, 54-75.
- Arceneaux, K., Johnson, M., & Murphy, C. (2012). Polarized political communication, oppositional media hostility, and selective exposure. *Journal of Politics*, 74(1), 174-186.
- Aronson, E. (1969). The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A current perspective.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4). New York: Academic Press.
- Baumeister R. F., Bratslavsky, E., Finkenauer, C., & Vohs, K. D. (2001). Bad is stronger than good.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5, 323-370.
- Berelson, B., & Steiner, G A. (1964). *Human behavior: An inventory of scientific findings*.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 Brannon, L. A., Tagler, M. J., & Eagly, A. E. (2007). The moderating role of attitude strength on selective exposure to inform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3, 611-617.
- Craig, S. C., Martinez, M. D., Kane, J. G., & Gainous, J. (2002). Core values, value conflict and citizens' ambivalence about gay rights.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8(1), 5-17.
- Edwards, K., & Smith, E. E. (1996). A disconfirmation

- bias in the evaluation of argu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5-24.
- Festinger, L. (1957). *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Evanston, IL: Row, Peterson & Company.
- Fischer, P., Fischer, J., Weisweiler, S., & Frey, D. (2010). Selective exposure to information: How different modes of decision making affect subsequent confirmatory information processing.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9(4), 871-881.
- Fischer, P., & Greitemeyer, T. (2010). A new look at selective-exposure effects: An integrative model.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9(6), 384-389.
- Fischer P., Jonas, E., Frey, D., & Schulz-Hardt, S. (2005). Selective exposure to information: The impact of information limit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5, 469-492.
- Fischer, P., Schulz-Hardt, S., & Frey, D. (2008). Selective exposure and information quantity: How different information quantities moderate decision makers' preference for consistent and inconsistent in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4, 231-244
- Freedman, J. L., & Sears, D. O. (1963). Voters' preferences among types of information. *American Psychologist*, 18, 357
- Freedman, J. L., & Sears, D. O. (1965). Selective exposure.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 (pp. 57-97). New York: Academic Press.
- Garrett, R. K. (2009). Echo chambers online? Politically motivated selective exposure among Internet users.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4, 265-285.
- Hart, W. D., Albarracín, D., Eagly, A. H., Brechan, I., Lindberg, M. J., & Merrill, L. (2009). Feeling validated versus being correct: A meta-analysis of selective exposure to inform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35, 555-588.
- Hawkins, D. I. (1972). Reported cognitive dissonance and anxiety: Some additional findings. *The Journal of Marketing*, 36(3), 63-66.
- Horrigan, J., Garrett, K., & Resnick, P. (2004). The Internet and democratic debate (Pew Internet and American Life Project Reports). Retrieved from [http://www.pewinternet.org/~media/Files/Reports/2004/PIP\\_Political\\_Info\\_Report.pdf](http://www.pewinternet.org/~media/Files/Reports/2004/PIP_Political_Info_Report.pdf)
- Iyengar, S., & Hahn, K.S. (2009). Red media, blue media: Evidence of ideological selectivity in media use. *Journal of Communication*, 59, 19-39.
- Iyengar, S., Hahn, K. S., Krosnick, J. A., & Walker, J. (2008). Selective exposure to campaign communication: The role of anticipated agreement and issue public membership. *Journal of Politics*, 70, 186-200.
- Kanouse, D. E., & Hanson, L. R. (1972). Negativity in evaluations. In E. E. Jones, D. E. Kanouse, H. H. Kelley, R. E. Nisbett, S. Valins, & B. Weiner (Eds.), *Attribution: Perceiving the causes of behavior* (pp. 47-62). Morristown, NJ: General Learning.
- Kim, Y. (2015). Does disagreement mitigate polarization? How selective exposure and disagreement affect political polarization.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92(4), 915-937
- Klapper, J. T. (1960). *The effects of mass communication*. Glencoe, IL: The Free Press.
- Klein, J. G. (1991). Negativity effects in impression formation: A test in the political arena.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7, 412-418.
- Klein, J. G. (1998). Negativity in intradimensional judgments of presidential candidate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25, 574-577.
- Knobloch-Westerwick, S. (2014). The selective exposure self- and affect-management (SESAM) model: Applications in the realms of race, politics, and health. *Communication Research*.
- Knobloch-Westerwick, S., & Romero, J. P. (2011). Body

- ideals in the media: Perceived attainability and social comparison choices. *Media Psychology*, 14(1), 27-48.
- Krosnick, J. A., & Petty, R. E. (1995). Attitude strength: An overview. In R. E. Petty & J. A. Krosnick (Eds.), *Attitude strength: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pp. 1-24). Mahwah, NJ: Erlbaum
- Lord, C. G., Ross, L., & Lepper, M. R. (1979). Biased assimilation and attitude polarization: The effects of prior theories on subsequently considered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2098-2109.
- Menasco, M. B., & Hawkins, D. I. (1978). A field tes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gnitive dissonance and state anxiety.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5(4), 650-655.
- Messing S., & Westwood S. J. (2014). Selective exposure in the age of social media: Endorsements trump partisan source affiliation when selecting news online. *Communication Research*. 41(8), 1042-1063.
- Mutz, D. C. (2006). *Hearing the other side: Deliberative versus participatory democrac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am, H. H., Jost, J. T., & Van Bavel, J. J. (2013). "Not for all the tea in China!" Political ideology and the avoidance of dissonance-arousing situations. *PLoS ONE* 8(4): e59837. doi:10.1371/journal.pone.0059837
- Redlawsk, D. P. (2002). Hot cognition or cool consideration?. *Journal of Politics*, 64(4), 1021-1044.
- Sawicki, V., Wegener, D. T., Clark, J. K., Fabrigar, L. R., Smith, S. M., & Durso, G. R. O. (2013). Feeling conflicted and seeking information: When ambivalence enhances and diminishes selective exposure to attitude-consistent inform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9(6), 735-747.
- Sawicki, V., Wegener, D. T., Clark, J. K., Fabrigar, L. R., Smith, S. M., & Bengal, S. T. (2011). Seeking confirmation in times of doubt: Selective exposure and the motivational strength of weak attitudes.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2, 540-546.
- Sears, D. O. & Freedman, J. L. (1967). Selective exposure to information: A critical review. *Public Opinion Quarterly*, 31, 194-213.
- Shoemaker, P. J. (1991). *Gatekeeping*. Thousand Oaks, CA: Sage
- Smith, G. R. (2010). Politicians and the news media: How elite attacks influence perceptions of media bia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15, 319-343.
- Stroud, N. J. (2008). Media use and political predispositions: Revisiting the concept of selective exposure. *Political Behavior*, 30(3), 341-366.
- Stroud, N. J. (2010). Polarization and partisan selective exposure. *Journal of Communication*, 60(3), 556-576.
- Stroud, N. J. (2011). *Niche news: The politics of news choi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uinn, R. M. (1965). Anxiety and cognitive dissonance. *The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 73(1), 113-116.
- Taber, C. S., & Lodge, M. (2006). Motivated skepticism in the evaluation of political belief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0, 755-769.
- Thornton, J. R. (2011). Ambivalent or indifferent? Examining the validity of an objective measure of partisan ambivalence. *Political Psychology*, 32(5), 863-884.
- Tsfati, Y., & Cappella, J. N. (2003). Do people watch what they do not trust? Exploring the association between news media skepticism and exposure. *Communication Research*, 30, 504-529.
- Vraga, E. K. (2015). How party affiliation conditions the experience of dissonance and explains polarization and selective exposure. *Social Science Quarterly*, 96, 487-502.

Wojcieszak, M. E., & Mutz, D.C. (2009). Online groups and political discourse: Do online discussion spaces facilitate exposure to political disagreement?. *Journal of Communication*, 59, 40-56.

Ziemke, D. A. (1980). Selective exposure in a presidential campaign contingent on certainty and salience. In D. Nimmo (Ed.), *Communication yearbook* (vol. 4)

(pp. 497-511).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Books.

최초 투고일 2017년 05월 29일

논문 심사일 2017년 07월 11일

논문 수정일 2017년 07월 14일

게재 확정일 2017년 07월 25일

## How People Choose What to Read

### The Roles of Prior Attitudes and Political Tendency in Selective Exposure to Nuclear Energy Information

**Hyo Jung Kim\***

Kepeco International Nuclear Graduate School (KINGS)

Selective exposure refers to the tendency of individuals to choose information that matches their existing attitudes or beliefs and to avoid information that does not. This study examined public's tendency of selective exposure to nuclear-related information by letting individuals read a news article that emphasizes the benefits of nuclear power and then asking them select additional (positive or negative) news articles to read. As a result of online experiments, participants ( $N = 180$ ) tended to prefer articles that matched their existing attitude toward nuclear power in Korea (support or opposition). These selective exposure tendencies appeared in both the nuclear support group and the opposing group.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psychological mechanism of selective exposure by analyzing participants' tendency to select articles from two perspectives: (a) cognitive dissonance, and (b) difference in perceived message credibility.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 individuals in the opposition group showed the greater tendency of selective exposure as they had lower credibility perception of the news article they read. Finally, this study found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participants' prior attitude toward nuclear power (opposition vs. support) and political orientation (conservative vs. moderate vs. liberal) on selective exposure to news articles on nuclear power.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experiment were discussed.

**KEYWORDS** selective exposure, nuclear energy, cognitive dissonance, message credibility

---

\* [hyojkim@kings.ac.kr](mailto:hyojkim@kings.ac.kr)